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12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8.11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삶을 나누며 위로받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와 치유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건명 집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발앞 에 나-앞드 러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성서교독 요한복음 15장 다같이

인도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성도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도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도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도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도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인도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성도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인도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성도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회기도 나, 이웃, 교회, 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다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히브리서 13:1-6..... 다같이
말씀묵상..... 다같이
말씀나눔..... 조별로 나누어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말씀기도..... 다같이
파송식..... 조성권 청년 미국 유학.....이춘원 집사

파송의 메시지 낭독 - 이춘원 집사

선교적 삶을 향한 선서 - 조성권 형제

중보기도 - 다같이 / 마침기도 - 이춘원 집사

축복메시지함 전달

교인들과 허그 축복 (성권형제가 가운데 서고, 교인들은 한줄로 서서 허그축복 한 후 자리로갑니다)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4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5-6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묵상노트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하나
작은



님의부-르심-에는-후회하심이-없네- 내가이자리-에 선것도-주의
나를부-르신- 뜻을-나는알수없-지만- 오직감사와-순 종으로-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님의부-르심-에는-결코실수가-없네- 나를
길을가-리라- 때론내가연-약해-저도-주님날도우-시니- 주의



부르신-하 나 님의- 신실 하 심을-믿 네-
놀라운-그 계 획을- 나는 믿 으며-살 리-



날부 르신뜻- 내 생 각 보 다 크 고 - 날 향



한 계획- 나의지혜로 측 량못-하 나- 가 장



좋은길로- 가장 완전한-길로- 오늘 도 날 이끄심-믿 네
신실 하 신 주를찬-양 해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오후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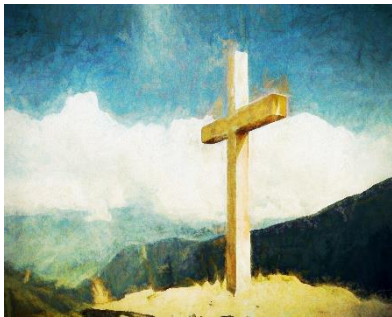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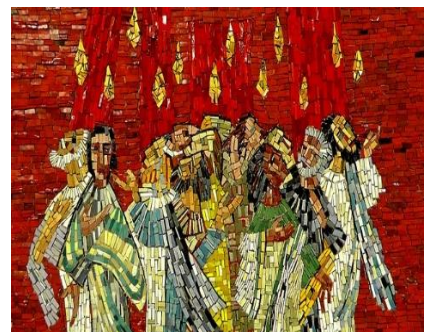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눔질문

모임을 시작 전, 안내 사항을 한 사람 씩 교대로 읽고 시작하십시오.

1.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2.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3. 내가 말하는 것 만큼 남이 말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4.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것을 소망합니다.

나눔의 인도는 팀에서 결정하여 진행해주십시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속에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안에서)
-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인들)
- 3. 3절에서 갇힌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자를 생각하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 삶을 살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 4.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보십시오.
-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누어보십시오.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성권 형제 파송식

오늘 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조성권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입니다. 축복해주시고 중보해주십시오. 오시면 주보옆에 비치된 **카드에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 예배시작전에 함에 넣어주십시오.** 예배중 파송식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주일예배 설교

다음주일에는 임영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속에 말씀을 전해주시길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다음주 교역자 휴가

다음주일은 이건명 집사님이 휴가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충전되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담임목사님 성지순례 사역

8.1일부터 18일까지 담임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을 감당하고 오실 예정입니다. 건강과 사역을 위해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4: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050-6701-4014